

# 한국문화교류 소식

7호 2013년 3월 15일 발행 ·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Seoul)

121-813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1-1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 ‘한국문화를 담는 그릇’



이형모  
본회 운영위원, 재외동포신문 대표

요즘 사람들은 정말 여행을 많이 한다. 국내 여행은 물론 국외 여행까지 일상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비즈니스 출장이 아닌 여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풍광이 좋은 곳을 찾아간다. 두 번째는 명승고적도 있으면 좋다. 세 번째는 그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마을 광장과 시장, 교회, 극

장 등 그곳 사람들의 일상 공간에다가 가서 살아 숨쉬는 생활풍속과 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싶은 것이다.

재외동포신문은 하와이 이민 100주년이 되던 해에 창간해서 금년 4월이면 10주년이 된다.

재외동포사회를 왕래하며 지나간 10년 동안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것이 많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넓고 다양하다. 220여 나라가 있고, 그 중에 175개국에 726만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 현재를 사는 내 삶의 지평선과 수평선은 참으로 넓기도 하다. 그런데 재외동포들을 만나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한민족의 유래와 정체성’을 이야기 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역사 공간이 먼 옛날의 선조들로부터 내게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도 알아야 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도 익혀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

면 복수의 언어와 정체성에 근접하기까지 한다. 완벽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이럴 경우, 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은 21C 글로벌 환경에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국수주의이고 무익하다고도 한다. 굳이 한민족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않아 주변에 동화되고 삶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추동력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 정체성 형성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넘어 고급 한국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는 '한글'과 '태권도'를 한국 문화의 중심 소재로 삼아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두

가지 모두 이미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주마가편으로 더욱 노력해서 한류문화 세계화의 첨병이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문화라면 생활풍속부터 예술, 문학, 철학, 역사, 체육 등 삶의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 문화의 바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고시대 단군임금은 백성들에게 "우리들은 하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은 하늘님이 내려주신 분들이고, 옛날 배달의 나라를 개천하신 환웅임금님의 은공을 보답해야 한다."고 가르쳐서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고조선을 4346년 전에 개국했다. 그래서 경천(敬天), 효(孝), 보본(報本: 조상을 섬김), 홍익인간은 한민족 DNA에 각인된 윤리 도덕이고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조선 3세 가락단군(BC 2181) 때는 표음문자인 '가림토정음' 38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 해에 '배달유기'라는 배달의 나라 역사책을 편찬했다. 11세 도해단군(BC 1891) 때에는 전국 열두 명산의 가장 뛰어난 곳을 택해 소도를 세우고 국민교육센터로 운영했다. 소도에는 반드시 경당을 설치해서 미혼 자제

들을 모아 '독서, 활쏘기, 말타기, 예절, 노래와 음악, 권박(拳搏)과 검술'의 6과목을 가르쳐서 인재를 양성하는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삼았다. 고조선은 43세 단군 1908년간 계속되었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전기조선(1048년간)과 후기조선(860년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전기조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1명 단군 중에 9명의 황태자가 세습한 것이 아니고 장관 출신으로 공적을 세워 단군으로 즉위한 것이다. 6세 달문단군(BC 2049) 때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화백제도를 최초로 시행

했는데, 화백이란 만장일치나 다수결이 아니고 다수파가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긴 시간 토론 끝에 소수파의 공감과 승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공감정치'를 실행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편 진흥왕조 37년 기사에 수록된 난랑비 서문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 남긴 글이다.

"나라에 깊고 묘한 도가 있었으니 풍류(風流)라 하는데 진실로 이 안에 삼교(유교, 불교, 도교)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문화를 담는  
진정한 그릇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이다.....  
21세기,  
한민족은 정체성은  
뚜렷하지만 배타성을 극복하고  
패권적이지 않고  
홍익인간을 품을  
평화의 사도가 되어.....

최치원 선생이 표현한 '풍류'는 최초의 한류로서 상고시대 이래로 동북아시아에서 문명과 종교와 사상을 선도했던 우리 조상들의 족적을 알게 해 준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배우고 있는 태권도가 진실한 한류인 까닭은 단지 무예일 뿐만 아니라 '효(孝)'를 비롯한 한민족의 정신문화가 배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천 년 전 '경당'을 세우고 청소년 교육에 독서와 예법을 앞세워 언어와 문자 교육을 충실히 하며 활쏘기와 말타기로 정신수양과 팀워크를 다진 점, 노래와 음악으로 정서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권박과 검술로 상무정신을 가다듬었던 전통을 기억하자. 이 전통은 고구려의 '조의선인'과 신라의 '화랑'으로 이어져 한민족의 몸과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언어 또한 4천 2백 년 전, 가락단군이 가림토정음을 만들고 한자와 이두로 문자생활에 매진했던 한민족의 전통이 세종28년(1446년),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공덕으로 이어져 전 세

계가 부러워하는 으뜸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류문화, 한국문화란 무엇인가? 상품인가?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상품이 아니다.

한국문화를 담는 진정한 그릇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이다. 세계인은 우리가 담고 있는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수는 없다.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 보일 때 한국문화는 존경과 애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의 첫 번째 대상은 재외동포 차세대일 것이고, 그 다음이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다. 태권도와 한글의 매력 때문에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한국어를 통해 한국인들이 담고 있는 한국문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에 21세기, 한민족은 정체성은 뚜렷하지만 배타성을 극복하고, 패권적이지 않고 흥인인간을 품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 나라를 세우고 가르치신 큰 조상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은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부 추천도서 -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국영문 합본)  
김혜옥 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지식의나침반 에피스테메 press.knou.ac.kr

## 영국 초등학교 맨 땅에 심겨진 한국어 씨앗 Corpus Christi Catholic Primary School



이정순

Marymount Int'l School 한국어 IB 교사, 런던한국학교 교감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고개를 들어 본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돌보는 학부모들이 교문을 나서는 길이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사람은 분명 한국인이 아니다. 그 얼굴엔 ‘나도 한국말 한마디쯤은 안다’는 자부심이 웃음으로 울려 퍼지다가, 나의 놀란 얼굴에 겸연쩍이 말꼬리를 흐린다. “I am trying to learn Korean ~~.”

영국 땅에서 영국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 시대!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인가? 20년 전만 해도 영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Korea’라는 나라를 몰랐다. 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영국 아이들은 검지 손가락을 그들의 눈꼬리에 대고 치켜 올리면서 ‘물란, 물란~’ (중국 만화영화 주인공)하며 놀려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도 ‘강남 스타일!’ 혀 꼬부라지는 소리와 함께 말춤을 추며 ‘나도 너희 나라 한국에 대해 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의사

들이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영국인이 한국인을 인식하고 한류의 열풍이 유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 다른 문제이다.

영국은 한국어 씨를 뿌리기에 참으로 척박한 땅으로 한국어 보급은 주로 대학과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양적으로 많지 않아 한국어 강좌가 있는 곳은 한국어과가 있는 두세 곳의 대학, 한국 문화원, 그리고 2011년 1월에 시작된 한인종합회관에서이다.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주말한글학교에서 행해지는 소규모의 한국어 강좌와 지방 대학 내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한국어 강좌가 몇 곳 더 있는 정도이다. 2012년에 처음으로 ‘영국한국교육원’의 현지학교 한국어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초·중·고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일이 착수되었으나 현재 영국 전역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다만 2011년, 한국 교민이나 주재원들이 집중 거주하여 일명 한인 타운이라고도 불리는 뉴몰든(Nem Malden)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 내의 초·중·고 공립학교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교 탐색에 나선 결과 2012년 2월부터 세 학교(초등학교 두 곳과 중등학교 한 곳)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코퍼스 크리스티 캐톨릭 초등학교(Corpus Christi Catholic Primary School)가 그 중 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일주일에 한 시간씩, 3~6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시범적으로 한국어를 프랑스어

와 더불어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고 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정규과정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 5학년은 두 학급이고 매주 수요일에 외국어 수업을 한다. 한 교실에서 프랑스어를 하면 다른 교실에서는 한국어를 하고, 한 시간이 끝나면, 서로 반을 바꿔 가르친다.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접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시간인데다 한국어를 자신의 선택에 의해 배우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넣었기 때문에 매주 한 시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의 과제는 이런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재미있게 배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수업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난 대학을 졸업하고 국어 교사를 한 지 올해 30년이 되지만 초등학생 수업은 이 학교가 처음이다. 그러나 한 학기 수업을 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지 알고 있다. 초등학생 수업은 많은 시청각 자료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 하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 매 시간 우리는 노래와 울동을 한다. 물론 매 시간 새 노래를 배우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동요의 리듬에 가사를 변용해 수업에 이용한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는 '곰 세 마리'이다. 이 노래는 수 세기나 가족을 지칭하는 어휘 그리고 단위 명사를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노래이다. 물론 울동도 좋아한다. 동요뿐 아니라 사물놀이 악기를 배워 전체

조화에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였다.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의 선망의 눈빛을 온몸에 받으며 우쭐해 하던 아이들의 몸짓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전통악기 가르치는 일은 악기 대여에서부터 악기 운반, 그리고 전문교사 섭외 등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한국 음식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음식과 관련된 어휘를 배우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음식 예절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태권도 시간도 두 번 가졌다. 두 번으로 무슨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겠는가? 그 속에 담긴 도의 의미와 더불어 간단한 명령어들을 익히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어떤 시간보다 즐겼다. 영국 선생님도 "태권도 같은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 일도 한국어 교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보급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일인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어가 '한민족 언어에서 세계의 언어'로 확산되어가고, 한국어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던 경향이 한국 문화 즐기기 열풍(이른바 한류)을 타고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자국의 언어인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 학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영국의 독특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저 먼 동양의 한 나라 언어, 한국어가 현지 영국학교에서 가르쳐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이 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



국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올 한 해의 수업을 통해 학습 결과의 성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교장(Mrs Vanessa Vaughan)이 결정할 계획이다. 이 일의 성공여부는 한 교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다. 나의 여러 고충을 듣던 동료 교사는 '선구자는 외로운 것' 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몇몇 분의 도움으로 맨 땅에 씨가 하나 심겨졌다. 영국에서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부모에서부터 이 지역에 사는 교민들, 영국에 주재한 한국 기업들, 대사관에 이르기까지 잡초를 제거하고 양분을 주는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실 들어가는 길에 만난 아이들이 "삼-육-구, 삼-육-구" 하면서 나를 맞이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숫



자 게임이다. 복도에 앉아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굴 가득 미소로 인사한다. 한국어 교사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심겨진 씨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겸허한 자세로 물을 주는 일밖에.

## ■ 한국어 기사

### ‘엘 소살 중학교에 한국어반 개설’

지난해 몬트레이 지역에 존 E. 스타인백 초등학교에 한국어 반이 개설된 데 이어 또 하나의 한국어 반이 추가 개설된다. 살리나스의 엘 소살 공립중학교는 오는 4월부터 한국어 반을 개설하고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호세 카스테나드 살리나스 시의원, 프란시스코 후에타 엘 소살 중학교 교장, 신주식 SF 한국교육원장, 문 이 한국어발전추진위원회장, 이용찬 몬트레이 한인회장 등 양측 관계자가 모여 내달 7일에 있을 SF한국교육원, 살리나스 통합교육구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한국어 반 개설에 따른 최종 논의를 마쳤다. 문 이 회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실을 얻게 돼 기쁘다"면서 "고등학교에도 한국어 반이 개설되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F 한국교육원, 살리나스 통합교육구간 MOU 체결식은 오는 7일 엘 소살 중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_ 미주 한국일보 2013. 02.28.

## ‘한국어’ + ‘태권도’ + ‘국악’ = Korean-American Charter School



레지나 임  
코리아태권도 대표

“Karate Instructor?” 태권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서자 시큐리티 가드(학교 보안요원)가 별로 친절하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이 구별 안 되는 영어가 참 거북하게 들립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복도로 들어섭니다. “Oh, My God! That’s Karate teacher! Hey, try to make kick!” 복도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정말 옥하는 마음이 들지만 경찰서와 다 연결되어 있는 학교에서 험상궂은 표정이나 몸짓을 보였다가는 바로 경찰서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꾸욱 참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특히 미국 교육자들에게 무도인 태권도에 대한 첫 반응은 “뭐라고?! 태권도를 체육으로 가르치자고? 애들이 태권도 배우고 싸우면?”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에 이들은 태권도가 학교 정규수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와 영화, 만

화들로 인해 공격적인 운동이라고 찍힌 무도는 이소룡이 죽고 몇 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학생이 왕따를 시킨 학생을 물리치면서 학교에서 영웅이 되는 만화 하나만 제작해 주면 태권도 교육 홍보 시 훨씬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지겹디 지겨운 체육 수업 시간을 4년이나 보냈고, 선생을 하나의 직업으로써만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의식에 정말 놀랐고, 버르장머리 없는 미국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주임 선생님과 도덕 선생님을 미국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생각을 4년 내내 했을 정도입니다.

첫 해 태권도수업 뎀 덩치 큰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그 기에 그냥 놀렸었습니다. 어떻게든 겁먹은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어깨와 눈에 힘을 주면서 다녔습니다. 처음 공립학교에 들어서는 사범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지만, 막상 겪고 나면 다들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본인들이 태권도 4단이든 5단이든, 540도 발차기를 하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학교에선 실제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호기심 넘쳐나는 아이들의 장난 섞인 말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들의 위상이 높다는 것은 도장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태권도의 교육적 장점을 미국 사회에서 잘 이끌어내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대우 받지만, 이는 자녀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겠다고 직접 데려온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님들과 그 자식들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은 교육과 경제 수준이 낮은 곳의 고등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 태

권도 수업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언어일 것 같지만, 실상은 '문화 차이'입니다.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인해 도덕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극복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태권도 체육수업은 최소 1명의 사범과 1명의 여자 코디네이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의 짓곳은 장난을 방지하려면 여자 사범님 혹은 코디가 들어가야 합니다. 클래스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에 유연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첫 고등학교 수업은 사범도 아닌 제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읽혀집니다. '저 동양 여자는 뭐지? 그래서 첫 수업은 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저 아이들의 어떠한 행동도 공황히 볼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여자로서는 참 큰 저라서 미국 내에서의 사회생활에 자신감도 있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아이들 30명 앞에서면 저도 마냥 작다고 느껴집니다.

각 코너에서 있는 사범님들 그리고 맨 앞에서 있는 나. 저는 최대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기 자리 찾아서 앉아! 우린 선생님님 아니야. 우린 태!권!도! 사범님들이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사에 대한 인식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코너에서 계신 사범님들이 'Yes, ma'am' 이라고 큰소리로 대답해 줍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번 'Sir' 나 'Madam' 이란 말을 사용해 보지 않고 들어 보지도 못한데 단 한 번도 머리 숙여 인사를 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

게 우린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서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각 반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학생 한 명씩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산을 넘어야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한 대라도 맞을까봐 무서운데, 어찌되었든 이 아이는 제 나이 반 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이상으로 그 아이도 무서워 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큰소리로 눈에서 레이저를 쏘아가며 말합니다. "나는 너희 부모도 선생도 아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 체육학점 없어서 내년에도 나랑 만날래?" 라고 반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1분 이내에 잘 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바로 칭찬을 해주고 마음을 열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밀당' 이 첫 수업입니다. 대학 때 읽었던 'The One Minute Manager' 를 회사의 스태프가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응용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첫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정말 아무 것도 못할 정도로 지쳐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험난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학교에 들어 설 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시큐리티가드부터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 학교에서 한국어는 폼나는 언어로 변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우리를 보며 '우리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왜 우린 태권도 안 배워요? 불공평해요~' 라고 태권도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기분 좋은 애교를 부립니다(학교에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나 보니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보급하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학년이 교장선생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마나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합니다. “태권도는 올림픽 스포츠이다. 너희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잘 알려진 가라테는 올림픽 스포츠가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태권도를 배워서 학교, 주 그리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시합 출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태권도는 한국 무도이기 때문에 태권도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다. 한국어를 이해해야 큰 시합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운트부터 한국어로 하고 한국어로 인사와 태권도 관련 용어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수업 중간에 한국 전통악기인 북을 사용하면서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과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치가 되어 오랜 노력 끝에 태권도를 정규체육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가 한국어를 끌어주고 한국어가 태권도를 밀어 주고 국악까지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학기 후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어를 넣고자 3년을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하고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한국어를 더 가르치

고자 했는데, 한국어는 그냥 밀려난 것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 시장입니다. 뉴욕시엔 1,700개의 공립학교가 있고 1.1 밀리언의 공립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맨해튼에서만 자리를 잡으면 세계적 진출을 노릴 수 있듯이 태권도, 한국어, 국악 수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수업을 미국 공립학교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 워크샵부터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없던 과목이 생긴 것이니 만큼 가르치는 지도자가 그 시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 영역의 지도자들끼리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야 합니다. 난 오늘도 꿈을 꾶니다. ‘Charter of the French Language’ 가 있는 것처럼 ‘NY Korean-American Charter School’ 에서 미국 학생들이 그리고 Korean-American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날을...



## 워싱턴 DC, 태권도 정규수업 채택 학교 2곳으로 늘어...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태권도가 지난해 초등학교에 이어 올해 중학교에서도 정규수업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봄학기부터 워싱턴DC의 ‘하워드대 부설 수학·과학중학교’에서 태권도가 정규수업으로 채택돼 6학년 학생 28명이 주 2회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지난해 가을학기에는 ‘폴 차터 공립학교(Paul Public Charter School)’가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태권도를 주 2회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으로 채택했었다. 출처\_미주 중앙일보 2013. 02.15.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ICKC-Seoul)

### ■ 매포청소년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공연 후원

충북 단양군 매포읍 거주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매포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 2월 12일~ 19일까지 스탠포드 대학 등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연주회를 개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이 '희망프로젝트'를 위해 300만원을 후원하였다. 특히 이들은 한국어



반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된 살리나시의 존슈타인백 초등학교를 방문, 세계화된 한국어의 위상을 눈으로 보며, 한국어반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하고 아리랑을 연주하는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총서 2' 발간 편집위원회 회의

2월 21일(목) ICKC 총서 2 '한국, Korea(가제)'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마포 사무실에서 가졌다. '총서 2'는 과거 전통 중심의 한국소개 책자와 달리 한류를 포함한 현대 한국을 알리는 한국 소개 책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광규 이사장, 박갑수 연구위원장, 위호인 홍보위원장, 이대근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외국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책자 발간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 ■ 재외동포 신문 주최 '올해의 인물상' 행사 후원

지난 한 해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재외동포신문 '2012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운동본부는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전영섭 감사, 박갑수 연구위원장, 이대근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 ■ 후원회비 보내 주실 곳

-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2013 ICKC 문화탐방 안내

날짜	장소	비 고
4월 09일	인왕산과 옥류동천	서울
5월 14일	보토현과 성북동천	서울
6월 11일	마리소리골	강원도 홍천
9월 1일~5일	연변	연변자치주 61주년 행사 참석
10월 08일	응봉과 낙산	서울
11월 12일	국립 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
12월 10일	국립 중앙박물관	서울

### [기타 안내]

- 회 비: 서울지역(50,000), 지방(100,000), 해외(별도 안내)
- 연락처: ICKC 사무국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이메일 hangyobon@gmail.com

## 4월문화탐방 “인왕산 옥류동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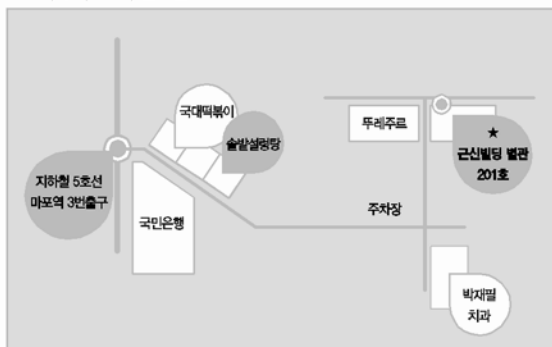
- ◆ 일시\_ 2013년 4월 9일(화), 오후 3시
- ◆ 만남의 장소\_ 상명대 앞 중식당 ‘팔선생’ 앞
- ◆ 회비\_ 5만원
- ◆ 저녁 식사 장소\_ 봉평막국수(02-732-4830)

\*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사무실 이전 안내

새 주소 : (121-813)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1-1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변동 없습니다. T. 02-2285-1070 / F. 02-2285-5070

### ◆ 찾아오시는 길



- 5호선 마포역 3번 출구로 나옵니다.
- '국대떡볶이'와 '국민은행' 사이 골목을 따라 50m정도 직진하세요.
- '박재필 치과'가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세요.
- 정면에 보이는 '일신포티니스'가 있는 건물입니다.
- 입구는 '두레주르'가 있는 곳에서 건물을 오른쪽에두고 우회전하시면 바로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2주년 기념 강연회

일 시: 2013년 3월 27일(수), 15:00~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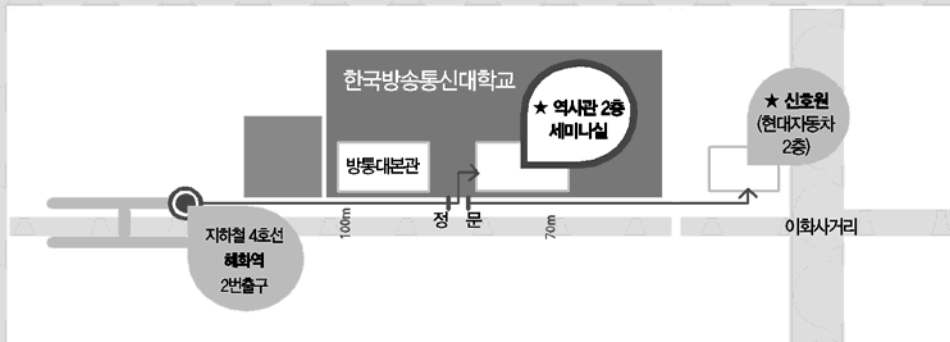
장 소: 한국방송통신대학 역사관 2층 세미나실

[개회사 및 경과보고]

[기념 강연]

- 세종대왕 리더십\_ 신봉승(극작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태권도,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_ 송종국(경희대 교수)

### ◆ 찾아오시는 길 [한국방송통신대학 & 만찬 장소(신호원)]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100m 직진.  
(방통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 2층입니다)
-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방통대 본관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 행사를 마친 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호원 02-745-9246)